

● 창립 33주년 기념행사

우리 연구원은 올해로 창립 33주년을 맞이하였다. 9월 12일 오후 4시에 은하수 홀에서 진행된 창립기념일 행사에는 박석재 원장을 비롯하여 170여명의 직원 모두가 참석하였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우수직원포상 및 장기근속자에 대한 기념품 전달과 함께 외부인 특별포상으로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박근표 선생이 최우수상을, 대한민국공군 문화홍보과 손경수 중령과 대전 MBC 광고사업국의 윤예로 씨가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박홍서 전임대장이 감사패를 받고, 연구원 33년에 대한 축사와 함께 본인 부지를 확보하면서 발생했던 에피소드를 후배직원들에게 들려주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 창립 33주년 기념 축하 공연(대·외국인 합창)

이날 행사는 예년과 달리, 연구원에 근무하고 있는 내·외국인(마루바시 가츠이, 부완 조시, 마헤스와 고피나단, 칭윈우, 여아란, 이경숙, 김상철, 임인성-지휘, 박영식-전자 기타, 김지혜-피아노)의 합창과 임인성 박사의 첼로 연주 등 축하무대도 함께 열렸다. 또한 공식행사를 마치고 대덕전파천문대 잔디광장에서 열린 만찬은 지역천문대, KVN 서울사무소 등 멀리 떨어져 있던 연구원들 간에 우의를 다지는 화합의 장이 되었다.

● 제4회 한국-멕시코 천체물리워크숍 : 성간물질

지난 9월 5일부터 3일간 우리 연구원 은하수 홀에서 제4회 한국-멕시코 천체물리 워크숍이 성간 매질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 워크숍은 2002년 멕시코의 엔세나다에서 제1회 한국-멕시코 천체물리 세미나를 개최한 이



래 회를 더해갈수록 더욱 발전해 오고 있다. 특히, 지난 2005년 멕시코에서 열린 제3회 세미나는 한국인의 멕시코 이민 100주년을 기념하는 워크숍으로서 우리 연구원의 박석재 원장과 멕시코 주재 한국 대사가 참석하여 워크숍을 더 빛내기도 하였다. 이번 워크숍에는 12명의 멕시코 천문학자를 포함해 국내 대학 교수와 대학원생 등 총 55명이 참석하였고, 36편의 논문을 통해 별 생성, 난류, 초신성 잔해에 대한 양국의 최신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었다. 이번 워크숍 프로시딩은 한국천문학회지를 통해 발간된다. 그리고 제5회 한국-멕시코 워크숍은 2010년 멕시코의 이나오에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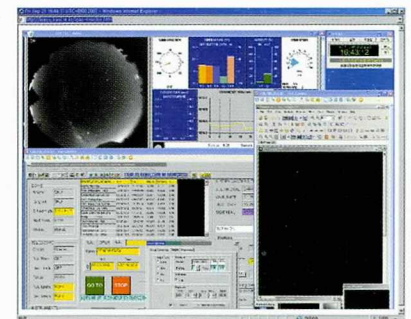
● 곡성섬진강천문대와 운영협력을 위한 협약 체결

지난 9월 19일 2시, 우리 연구원에서 제작한 60cm 망원경이 설치된 곡성섬진강천문대가 개관하였다. 이날 개관식에서 우리 연구원과 곡성군(군수 조형래)은 천문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협약식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식은 곡성섬진강천문대를 방문하는 관람객들에게 보다 정확하고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우리 연구원이 천문대 운영에 대한 자료와 천문관련 최신자료 등을 제공하고, 상호교류와 천문과학문화 체험행사 공동추진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곡성섬진강천문대에 설치된 60cm 반사망원경은 우리 연구원이 주도하여 국내기술로 자체 개발한 망원경으로, 망원경 기술을 국산화함으로써 천문대의 운영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고장 등의 문제점을 빠르게 해결하고, 성능 향상도 함께 이루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 레몬산천문대 관측 프로그램 웹 서비스

우리 연구원 레몬산천문대에서는 외부 관측자나 일반인이 레몬산천문대 원격 제어화면을 특별한 프로그램의 설치 없이 웹 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9월부터 제어화면 모니터링 웹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주소 창에 'http://loao.kasi.re.kr'를 입력하고 레몬산천문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상단메뉴 중 스카이 모니터링 시스템을 클릭하거나 'http://loao.kasi.re.kr/facility/sky.aspx'에 직접 연결하면 30초마다 바뀌는 레몬산천문대 원격 제어화면을 볼 수 있다. 원격제어화면은 레몬산천문대 현지의 밤하늘 모습과 온도, 습도, 풍향, 풍



속 및 강우 등 기상정보를 얻을 수 있고, 망원경이 조작되는 모습과 CCD 카메라를 이용하여 관측한 천체의 영상을 볼 수 있다.

● 2009 세계 천문의 해 준비를 위한 TF팀 구성



2009년은 갈릴레이가 망원경을 이용하여 세계 최초로 천체 관측을 하고, 그 결과로 지구가 우주의 유일한 존재가 아님을 발견한 지 400주년인 되는 해로, UNESCO(2005년 10월)가 승인한 "세계 천문의 해(이하 IYA : International Year of Astronomy)"이다. 전 세계 천문학계는 IYA를 성공적으로 기념하기 위해 이미 지난해부터 준비를 하고 있다. 작년에 개최된 제26차 IAU 총회에서는 IYA 관련 특별 세션이 개최되었고, 올 3월에도 각국의 대표가 IYA 사전 준비를 위한 모임을 독일 뮌헨에서 가졌다. 뿐만 아니라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각국의 '세계 천문의 해' 추진 실무자들이 모이는 국제회의가 개최된다. 현재 국제천문연맹에서는 8개의 Task 그룹을 구성하여 전 세계가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행사를 기획하고, 각국의 IYA 추진 내용을 웹 사이트(<http://www.astronomy2006.com>)를 통해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있다. 이에 우리 연구원도 다가오는 2009년을 준비하기 위해 자발적 참여자를 주축으로 "2009년 세계 천문의 해" 준비를 위한 TF팀을 구성하였다. 이 TF팀은 행사 아이템 개발을 주 임무로 2007년 9월부터 2008년 2월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 대형망원경사업 방향설정 2차 워크숍 및 사업설명회 개최

우리 연구원은 지난 9월 3일부터 5일까지 '대형망원경사업 방향설정 2차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워크숍에는 대형망원경사업그룹의 구성원과 광학부의 연구원, 그리고 외부 교수들이 참여하였다. 대형망원경사업그룹은 지난 2월에 1차 워크숍을 개최하여 사업목표를 2가지 방안으로 선정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이들 방안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최적의 방안으로 'GMT(Giant Magellan Telescope) DDP(Design Development Phase) 참여'를 결정하였으며, 목표 방안에 대한 구체적 사업계획을 작성하는 등 향후 추진전략도 마련하였다. 이어 9월 17일에는 우리 연구원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를 가졌다. 설명회에서는 2차 워크숍에서 결정된 사업방향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부분별 담당자들이 설명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 연구단지첨단전시관 견학

지난 9월 6일 우리 연구원 직원 26명이 연구단지첨단전시관을 단체 관람하였다. 연구단지첨단전시관은 지난 4월 과학기술부 국립중앙과학관 주관으로 엑스포 과학공원 내에 위치한 (구)정부관을 리모델링하여 만든 연구단지 홍보관으로, 18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일정 면적의 전시부스를 할당받아 각 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구성과물을 전시하고 있다. 이번 단

체 견학은 국립중앙과학관에서 각 출연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순차적으로 초대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으로, 첨단전시관에 근무하고 있



는 안내 도우미의 설명을 통해 다 기관의 연구 현황과 각종 전시물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었다. 우리 연구원은 국내 기술로 개발된 1m 광학망원경을 첨단전시관에 설치하여, 일반인이 망원경의 원리와 사용방법을 학습하고 직접 작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 EBS 국내 최초! 3D 우주 애니메이션 레이의 우주 대모험 방영

한국 교육 방송 공사(EBS)가 1년 6개월의 기획과 제작 기간을 거쳐 완성한 국내 최초의 3D 애니메이션 <레이의 우주 대모험>(연출 : 문



현식 PD)이 지난 9월 1일, 첫 방송되었다. 우리 연구원의 감수와 자료 협조를 통해 제작된 <레이의 우주대모험>은 어린이 대상 우주 동영상인 전무한 국내 현실에서 우주 곳곳을 실감나게 재현한 뛰어난 어린이 과학 교육 프로그램으로, 흥미롭지만 어려운 우주 관련 내용을 재미있는 이야기와 뛰어난 영상으로 풀어내어 초등학생을 비롯해 온 가족이 시청 가능한 프로그램이다. <레이의 우주대모험>은 호기심 많고 뭐든 알고 싶어하는 레이와 그때마다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던져주는 쿠스가 함께 시공을 뛰어넘어 광활한 우주를 탐험하는 내용으로,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50분부터 12시까지 10분간 20회에 걸쳐 방영된다.

- 20편 주제
- 1. 레이의 탄생
- 2. 지구의 탄생
- 3. 달엔 토끼가 살까?(I)
- 4. 달엔 토끼가 살까?(II)
- 5. 지구의 엄마, 태양(I)
- 6. 지구의 엄마, 태양(II)
- 7. 수성과 금성
- 8. 제2의 지구 화성
- 9. 태양이 되고 싶은 목성
- 10. 반지의 제왕 토성
- 11. 태양계의 끝은 어디일까?
- 12. 소행성의 충돌
- 13. 별의 일생
- 14. 별은 몇 개나 될까?
- 15. 블랙홀
- 16. 우주의 씨앗, 혜성
- 17. 우주왕복선을 발사하라
- 18. 우주비행사 되기
- 19. 우주정거장
- 20. 시간여행

● KBS 창작 뮤지컬 : '유방택 별을 보았네'

태조4년(1395) 천상열차분야지도(국보 제228호)를 만들 때 천문계산을 담당한 천문학자 유방택을 소재로 한 뮤지컬이 9월 15일 대전문화예술의전장에서 공연되었다. 이 뮤지컬은 우리 연구원의 자문으로, KBS대전어린이합창단이 주축이 되어 연극인, 성악가 등의 참여로 만들어졌다. 또한, 이 뮤지컬은 천상열차분야지도를 만들게 된 배경과 역사적 의의를 되새겨보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석각 천문도를 만든 유방택의 일생을 통해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자긍심을 일깨우는 창작 뮤지컬로, 우리나라의 과학자를 소재로 만들어진 점에서 의미가 크다.

